

10/6/19

설교 제목: 종말의 징조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3 장 1-13 절

- (막 13: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 (막 1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절관주 눅 19:44
- (막 13:3) ○예수께서 감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 (막 13:4)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 (막 1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막 13: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 (막 13:7)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 (막 13:8)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 (막 13: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 (막 13: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 (막 13: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 (막 13: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 (막 13: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 복음 13 장은 세상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세상 종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은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웅장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은 호령하시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여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백보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들어 갈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지옥 불못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 불못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가족으로 친구로 친척으로 이웃으로 만나 너나 나나 이 세상에서 그저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한 사람은 천국으로 다른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견디며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날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에서도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누가 옳은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나 중심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를 말세라고 지칭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말세지말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종말에 나타는 징조들과 또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을 주의깊게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막 13: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성전은 헤롯 왕이 46 년에 걸쳐 건축한 헤롯 성전입니다.

규모도 웅장했지만 아름다운 돌들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인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제 3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제 1 성전은 BC 957 년 솔로몬 왕이 7 년에 걸쳐 세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바벨론 침략으로 BC 586 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이 매대와 바사(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고레스 왕의 포로 유화 정책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스룹바벨의 진두 하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갖은 어려움 끝에 드디어 BC 515 년 제 2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 물자가 궁핍한 상태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사(페르시아)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로마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고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던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계와 모계 모두가 아랍 형통이었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초라했던 제 2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증축했습니다.

증축 공사는 BC 20 년에 시작해서 46 년이나 걸려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제 3 성전이라고 하지만 유대교는 이 성전을 제 3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성전은 엄밀히 말해 재건이 아니고 증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성전마저도 AD 70 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불에 타버렸고 이후 아직까지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 뜰 자리에 이슬람 성전 모스크가 지어져 있고 통곡의 벽만이 성전 잔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제 3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언제 제 3 성전이 지어지나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준비가 다 되었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성전의 겉모습에 압도되어 넋이 나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막 1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전의 겉모습만 가지고 감탄을 하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으시며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 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신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전 주일 예수님과 성전 안에 들어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성전 안은 매매하는 자들로 인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다시는 들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상황을 다 목격하여 성전의 내적 부패상을 모두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런 사실은 다 간과하고 성전의 외적인 모습에 현혹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 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교회 건물의 웅장하고 화려함이나 유명한 목사의 이름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묻습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질 날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막 13:3) 예수께서 감람 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막 13:4)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끝 곧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들은 그 때를 세상의 종말로 보고 그 날과 그 날의 징조를 묻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날이 다르긴 했지만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언급하십니다.

(막 1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막 13: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시며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교의 부패, 신학의 변질, 교회 지도자들의 변질, 교인들의 배교 등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크게 세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첫째는 신학들이 성경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고 왜곡시켜 교인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지금 로마 천주교와 여호와의 증인 물몬교 안식교 등 각종 이단 종파들과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타협주의가 교인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종교 통합을 외치며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궤변을 늘어 놓습니다.

그 예로 WCC 를 들 수 있습니다.

세째는 열광적인 은사 체험주의가 교인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친다거나 기적 같은 은사 체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게 말씀과 진리를 배워 알려고 하기 보다는 쉽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은 열광적인 은사 체험에 있지 아니하고 충실한 말씀과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 2. 다음 예수님은 전쟁과 재해 소식을 언급하십니다.

(막 13:7)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막 13:8)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20 세기 인류는 이미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경험했으며 21 세기 지금은 이란과 북한의 핵 전쟁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3 차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또 세계 도처에 지진 홍수 가뭄 태풍 등의 자연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징조들은 종말의 끝이 아니고  
시작의 징조라고 하십니다.

## 3.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을 핍박을 언급하십니다.

(막 13: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기 위해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며 심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이 되는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막 13: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핍박 가운데도 능히 견뎌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됨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과 지구력을 길러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크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4. 또 예수님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언급하십니다.

(막 13: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세계에 어느 정도 전파 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복음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5.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 때문에 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13: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막 13:13)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며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하며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는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화려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은 때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론 그들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겉모습에 속거나 압도 당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 던지는 미끼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속 마음을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날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자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 구원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 닥쳐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미혹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최후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